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I'm fine Thank you.

And you?

목차

01 / 5개월 간의 새 집
라오스

02 /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03 / 술과 흥의 마을
푼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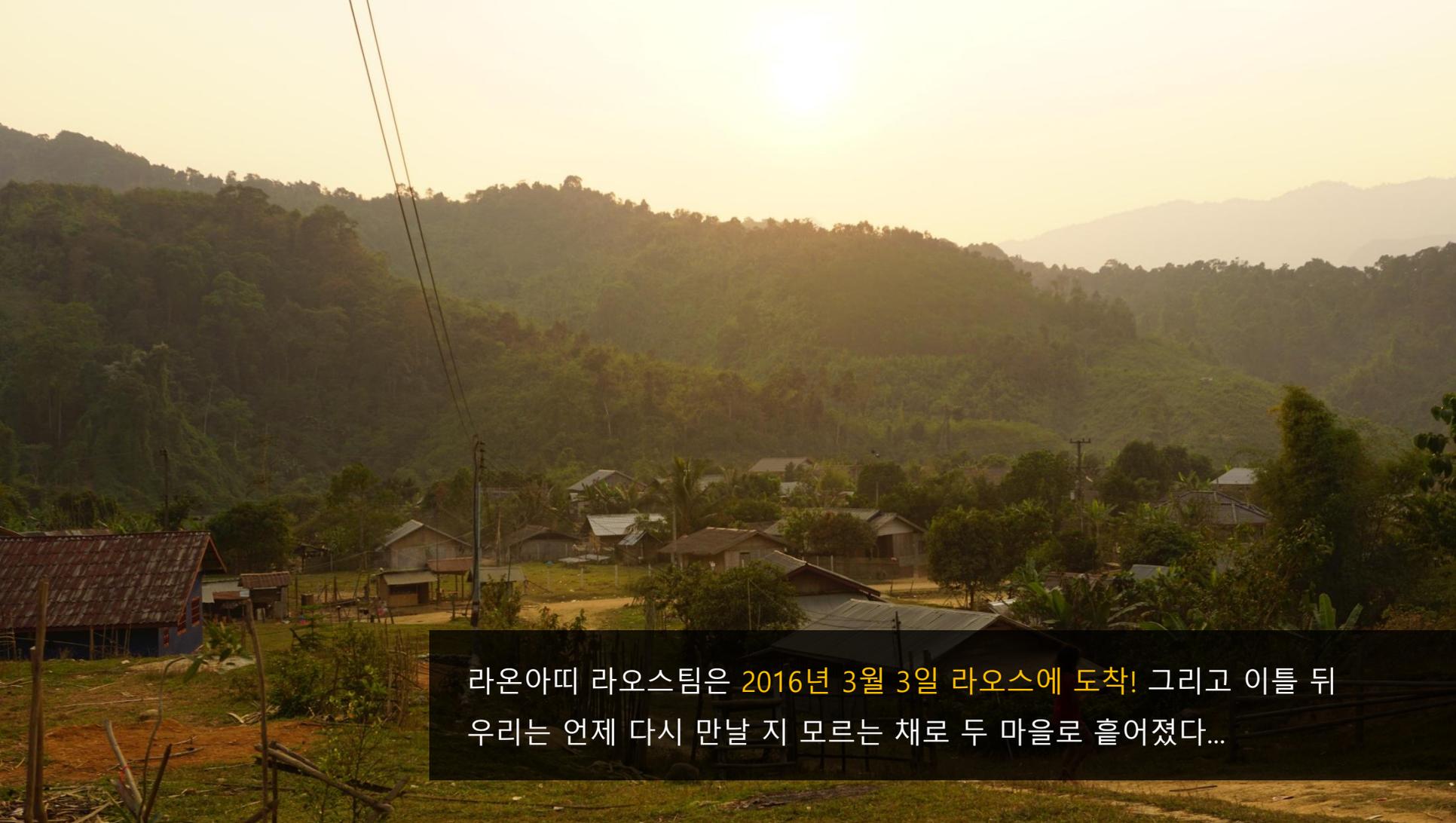
04 / 한 달 간의
개인 에세이





이 / 5개월 간의 새 집

라오스



라온아띠 라오스팀은 2016년 3월 3일 라오스에 도착! 그리고 이틀 뒤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 지 모르는 채로 두 마을로 흩어졌다...

김기남
김초롱



02 / 따뜻한 마을

나뭇느아



NAMONENEUA Youth Center



NYC STAFFS

Language Exchange
월~금 9:00~11:00



영어, 몽어, 라오어, 한국어 스터디

Elementary school

English&Art class
월~금 4:00~5:00



초등학생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꾸와 실로



자유롭게 색칠공부

Secondary school

English class

월~금 5:00~6:30



중 고등 학생들을 위한 기본 문법과 발음 교정 수업(원-기남/오-초롱)



몽족의 흔한 밥상





몽족의 흔한 특식





WOMEN'S DAY

몽족 전통복 입었어요~



백개를 찾아라

꾸 싸 버 백개 (I WANT TO SEE GECKO)

기- 마을에 수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백개... 백개... 백개...”

승-백개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전-기남이 앞집에서 유난히 자주 들려온다.

결-지붕 틈사이에서
“꾸 싸 버 백개 (백개를 보았다!)”



김희진

이민행

03 / 술과 흥의 마을

풍
경





푼송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수업

우리 마을 학생들은 영어 수업을 무척
좋아한다. 푼송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했던
일도 바로 '영어 수업'이었다. 수업 내용은
한 시간 동안 영어 단어 6개 외우기,
알파벳 외우기 정도가 전부지만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참여한다.



폰송 주민들의 흥을 볼 수 있는

마을 축제 이모저모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길 네네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준다



결혼식은 온 마을의 경사!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신랑 신부를 축하해준다



폰송 주민들의 흥을 볼 수 있는
마을 축제 이모저모



폰송 축제에는 춤이 빠지지 않는다. 남녀가 짝을 이뤄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



한 달 간의 폰송 마을 살이



폰송 마을 사람들은 매일 축구를 한다.
10대부터 30대 이상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축구를 즐긴다. 여자들도
축구 경기를 할 뿐만 아니라 무척 잘한다!

마을 아이들과 마을 이곳 저곳을 쏘다니며
열매도 따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놀았다.
우리를 낯선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고
폰송 주민 1로 대해줘서 너무 좋았다.



마을 나무에는 열대 과일이 무척 많다.
바나나도 있고 망고, 야자수도 있다.
나무만 탈 수 있으면 유기농 열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한 달 간의 폰승 마을 살이



일주일 중에 6일은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신 듯... 폰승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해 술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폰승에서의 삶은 여유가 굉장히 많다. 할 일이 없을 때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 마음 편하게 쉬었다. 바닥이 제일 시원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 !!

마을 살이 하면서 먹은 것들





라오어로 술은 라오

폰송 마을의 술꾼들



폰송 주민들은 정말 매일 술을 마시고 정말 술을 많이 마신다. 관찰 결과로 모든 삶이 술과 함께하는 것 같다...





04 / 한 달 간의

개인 에세이



라오스에 도착을 했을 때 왠지 외롭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한국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생각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언가 배우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 가게 되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들 먼저 다가와 주었다. 외로움은 많이 없어졌다. 사진을 보니 표정도 꽤나 많이 밝아 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다가와 주는 만큼 다가가고 싶었지만 마음 만큼 잘 안되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이 탔다. 부끄러움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기도 했다.



마을 살이 시작과 동시에 친구가 생겼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뽀자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이름이 지금은 한국어명보다 친숙하다. 마을사람들 모두 나를 ‘뽀자이’라고 불러준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 단지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들에게 가서 꽃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곳에서 살다 보니 사소한 것들로부터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일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밤하늘 별을 보는 여유를 알게 되었고 전자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졌다. 시간을 잘 안보게 되었다. 시간을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시간을 봐도 얼마 흘러있지 않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졌다. 스트레스 가득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훨씬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나는 감사하게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 하고 있다. 마냥 모두 행복하게 살고만 있을 것 같던 이 마을에도 빈부격차가 있고 각자 고민이 있었다. 그렇다고 내 친구가 행복하지 않은 걸까? 행복의 기준에 대해 계속 고민해보게 되는 요즘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힘이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할 수 있을지도 계속 생각 중이다.

내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다시 받는 것” 그것이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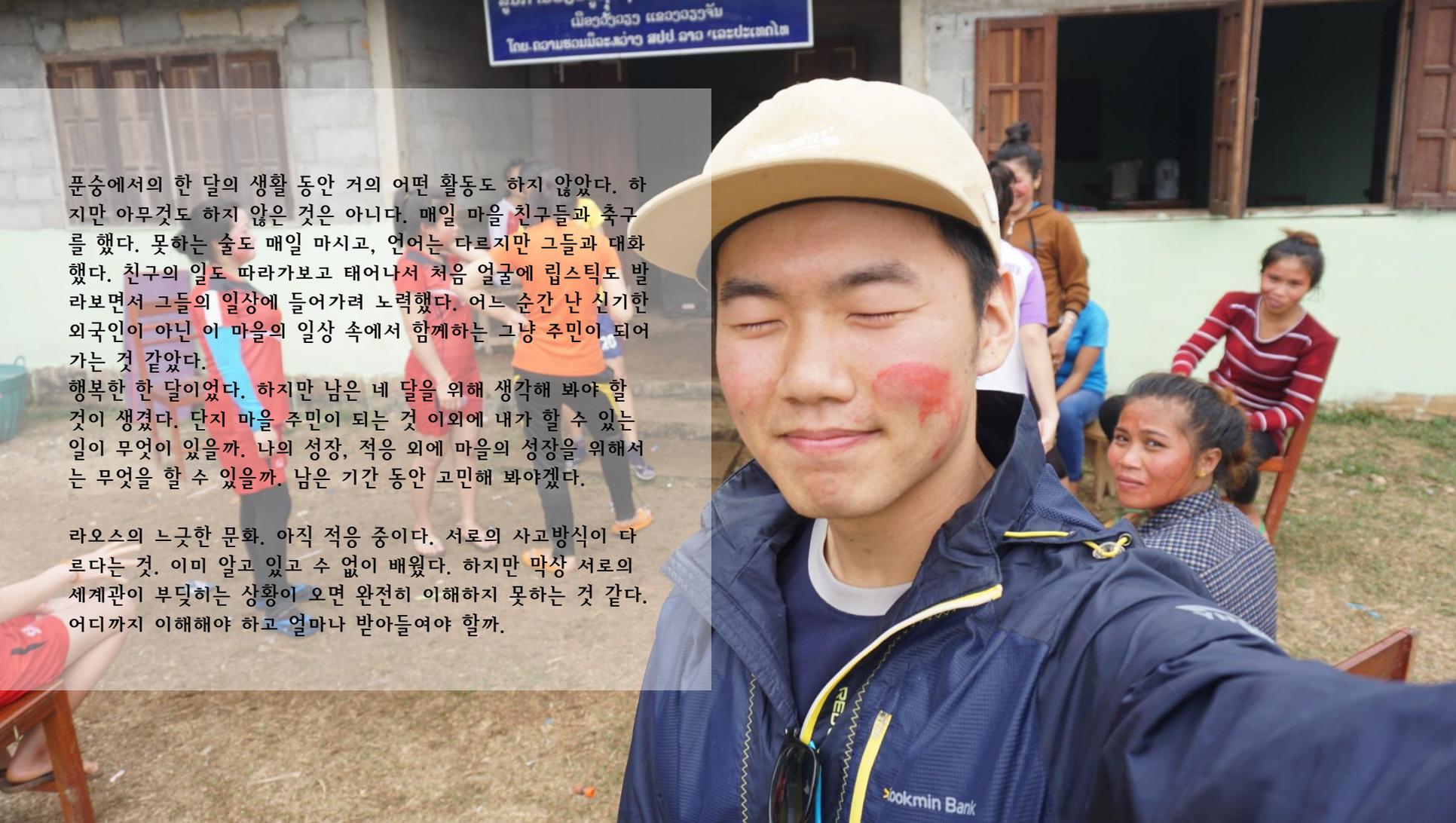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생소한 나라였던 라오스가 한 달 만에 편안해졌다. 지나가다 만나는 풍승 주민들은 눈만 마주치면 모두 환하게 웃어주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대하듯 “킨 비아(맥주 마셔)”를 외친다. 또 밥 시간엔 너나 할 것 없이 “킨 카오(밥 먹어)”라며 젓가락을 챙겨준다. 나를 지나가는 외국인이 아닌 함께 사는 마을 주민으로 여겨준 풍승 사람들의 정이 신기했고 또 감사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라오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라오스에 와보니 ‘그냥 마을 주민들과 살면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 마을 주민 1로 살아가면서 이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게 내가 라오스에서 해야 할 몫인 것 같다. 남은 4개월도 이번 달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푼송에서의 한 달의 생활 동안 거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매일 마을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못하는 술도 매일 마시고,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과 대화했다. 친구의 일도 따라가보고 태어나서 처음 얼굴에 립스틱도 발라보면서 그들의 일상에 들어가려 노력했다. 어느 순간 난 신기한 외국인이 아닌 이 마을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그냥 주민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행복한 한 달이었다. 하지만 남은 네 달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생겼다. 단지 마을 주민이 되는 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성장, 적응 외에 마을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은 기간 동안 고민해 봐야겠다.

라오스의 느긋한 문화. 아직 적응 중이다. 서로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 이미 알고 있고 수 없이 배웠다. 하지만 막상 서로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고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까.



+ / 저희는 다시 마을로 갑니다!

4월 보고서에서 만나요 😊